

S-Oil, 2005년 전망 밝지않다!

골드만삭스, 수출정제마진 강세 지속 불투명 ... 악화 불가피

골드만삭스는 2월21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영실적을 내놓은 S-Oil에 대해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을 제시했다.

S-Oil이 2월18일 발표한 2004년 4/4분기 순익은 3730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2930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나, “예상보다 강했던 것은 수출 정제마진의 강세와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강한 경영실적을 이끌어낸 요인인 수출정제마진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출정제마진은 2004년 4/4분기부터 악화되고 있고 2005년 1/4분기 경영실적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예상을 넘는 4/4분기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S-Oil의 2005년 경영전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함께 12개월 목표주가로 5만7000원을 산정했다.

<화학저널 2005/02/22>